

2022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베력 09월호



발행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행인: 정종남 편집: 박지훈 발행일: 2022년 09월 30일

홈페이지: <http://www.kbcil.or.kr> 전화: 908-7776 팩스: 0303-0799-1758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707호

거주시설연계사업 개별 ILP



▲ 김○호 어르신 천연나무 공예



▲ 오○천 어르신 버스 만들기



▲ 허○순 어르신 꽃꽂이 체험

거주시설연계사업 개별 ILP (김○호/오○천/허○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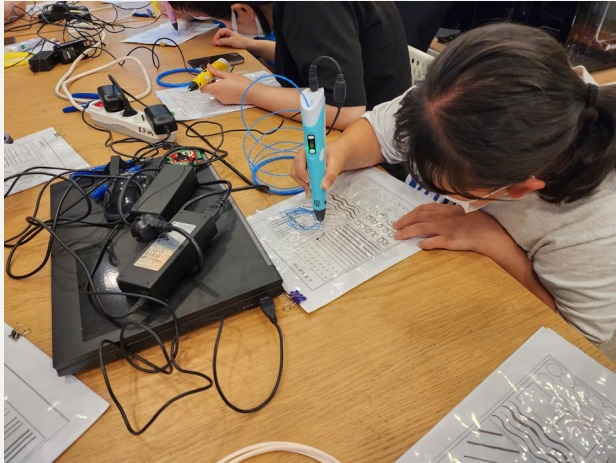
9월 1일(목) 김○호님은 이번에는 10가지 이상의 나무 조각을 붙여서 작품을 만드는 공예체험을 진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만들어야 할지 고민했다가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 토끼, 달팽이 등 다양하게 만들어보셨다며 수줍은 웃음소리를 내셨습니다.

9월 15일(목) 오○천님은 버스를 작게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버스 만들기 물품을 지원해드렸습니다. 오○천님은 버스 물품이 나무로 되어있어 뽀뽀해서 처음엔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깐 재미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버스가 잘 굴러가니 만든 보람도 있고 뿌듯하다며 프로그램 후기를 말씀해주셨습니다.

9월 22일(목) 허○순님은 꽃을 좋아해서 이번엔 공예체험으로 꽃꽂이를 진행하셨습니다. 각종 장미와 다양한 꽃을 조화롭게 맞춰 순서대로 날다 보니 바구니에 꽃이 한가득 피어 오르고 기분 좋은 향기도 맡으며 정말 좋다며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9월 프로그램을 모든 마친 참여자분들은 체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 행복함을 채워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8차 ‘어울림’ - 3D펜 체험



▲ 3D펜으로 예쁘게 만들어보시다.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어울림' 단체사진

9월 14일(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어울림’ 8차 3D펜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은 3D펜 체험을 위해 홍대입구역 근처 3D메이커 박스로 이동하여 강사님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사님은 3D라는 생소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사진, 동영상 등을 예시로 보여주시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3D펜 체험 하기에 앞서 평소 좋아했던 캐릭터, 사진, 그림 등을 3D 프린터로 출력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D 프린터가 작동하는 동안 참여자분들은 3D펜을 활용하여 허공에 그림을 그리듯 휘황찬란한 몸동작을 펼쳐가며 안경, 나비, 캐릭터 등 자유롭게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완성한 작품과 프린터로 만들어진 작품을 비교해보며 신기해요. 어렵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본인의 생각하는 대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라며 후기를 말해주며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일상 속 차별찾기 21년도 개선사항 모니터링 - 1차



▲ 장애인 화장실 내 등받이 미설치 당시 모습

▲ 장애인 화장실 내 등받이가 설치되어 개선된 모습

▲ 개선되지 않은 세면대 높이

▲ 개선되지 않은 잠금 장치가 없는 여닫이 문

9월 17일(토) 13:00 ~ 18:00 민원제기에 대한 개선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제1차 21년도 개선사항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7월 14일(수) 당시 성북 문화원 내 장애인 화장실의 등받이 및 세면대 높낮이, 개폐식 문 설치에 관한 민원을 제기 했었고 개폐식 문 설치, 장애인용 변기 등받이의 경우 향후 예산 확보 시 개·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1년 모니터링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 기관을 재방문 시 장애인용 등받이 설치가 완료되어 개선됨을 확인하였지만 나머지 세면대, 여닫이 문 등은 여전히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민원 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에 힘써주신 성북 문화원과 수고하신 최승완 활동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끝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은 꼭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강북센터와 성북 문화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장애예술인 특별전 관람후기



▲ 장애인 예술전 작품해설을 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경내 안 간이화장실 경사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 라는 주제로 8월 31일부터 9월 19일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애예술인 특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날인 9월 19일(월)에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더불어 청와대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장애인 작가님들께서 그리신 작품들이 제일 궁금하여 장애예술인 특별전을 관람하려고 춘추관으로 출발하였지만 위층으로 올라가는 리프트가 고장이 나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문으로 가면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에 정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시관에 들어가니 마침 작품해설 시간과 딱 맞아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작품들이, 작가의 생각에 공감되어지고 한층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시관 관람이 모두 끝난 후 청와대를 관람하였습니다. 도심의 한 가운데 숲속으로 둘러싸인 청와대를 둘러보며 역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지내시던 곳이라서 진심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경사로와 계단이 너무 많아 수동휠체어장애인이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화장실에 갔다가 난간이 없는 경사로에 가슴이 철렁하기도 했습니다. 임시로 지어진 간이화장실이었지만 조금만 안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 <여가문화체험 - 반려문화체험>



▲ 큰 강아지도 착하고 귀엽습니다.



▲ 간식을 줄게 손을 다오.

무더위도 장마도 무서웠던 태풍도 지나가고 어느덧 2022년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입주자분들에게도 한가위와 가을의 청취를 느낄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입주자간담회에서 제안 드렸습니다. 그 중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던 반려문화체험을 입주자분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산책 나온 강아지들에게 입주자분들이 보여주었던 긍정적 모습을 관찰했던 기억이 있었고, 반려견들에게 나오는 사랑스러움과 애뜻함을 통해 한가위에 좋은 추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립 이후 입주자분들이 그럴 새로운 삶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반려문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소개하고, 자립이 현실과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것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삶도 있다는 것임을 알려드림으로써, 동기부여를 증진시키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삶에 반려문화가 없을지라도, 동기부여 측면의 가치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은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별자립지원 프로그램 <여가문화체험 - 반려문화체험>



▲ 반려문화체험을 마치고 식사중입니다(가형 주택)



▲ 다함께 맛있는 초밥 먹습니다!!(다형 주택)

큰 강아지들이 우르르 돌아다니는 첫 애견카페 장면에서 입주자들은 아무런 이야기 없이 의자에 앉아, 정신없이 움직이는 강아지들의 모습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입주자들의 다리사이를 스르르, 꼬리치며 지나가는 모습에 경계심도 스르르 녹아내리며 비로소, 반려문화체험을 즐겨주셨습니다. 입주자 이○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체험을 즐겨주셨고, 입주자 신○수님, 엄○희님은 강아지들의 활음과 용변활동이 싫다고 하시면서도 웃으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강아지들을 먼저 만지려 노력하셨습니다. 입주자 강○연님에게 아직은 강아지들이 어려웠는지 멀찍이 떨어져, 강아지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본인만의 방법으로 재미있게 반려문화체험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1시간 정도의 반려문화체험을 마치고, 사전 요청에 따라, 외식문화로 근처 초밥뷔페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함께 모여 추석의 분위기를 느끼며 각자 좋아하는 초밥과 애견카페를 방문하였던 후기를 공유하며 행복한 반려문화체험을 종료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분들에게는 아직은 반려문화가 낯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들도 그러하듯 반려견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애뜻함과 사랑스러움을 온전히 입주자분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매료 되었습니다. 주택 생활로 힘들고 지쳤을지 모르는 마음을 재충전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자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소방안전교육



▲ 화재 시 대피요령을 알아보시다.



▲ 소화기 사용법은 잘 알고 있습니다.

9월 26일(월) 다형주택에서 입주자분들과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내용으로는 소화기 사용법,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관리법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소화기 사용법과 대피요령에 대해서는 자립주택에서 수차례 교육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입주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엄○희씨는 불이 나면 ‘밖에, 나가’와 같이 화재현장에서 대피해야 한다며 말씀 하였고, 강○연씨는 ‘불이야!!’라고 크게 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화기 사용법 또한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초동조치에 중요한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며 관리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소방안전 프로그램으로는 안전체험관에 방문하여, 지진, 해일, 태풍 등에 대한 체험도 직접 해볼 예정입니다.

가형 장애인자립생활주택 - 소방안전교육



▲ 안전사항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 퀴즈를 통해 화재 수칙에 대해 배워봅시다.

9월 27일(화) 3분기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 신○수님, 이○수님, 코디네이터 변영훈 등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022년 1분기, 2분기 소방안전교육의 복습과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OX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 개별 문제와 주택 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화재 수칙 등을 토대로 퀴즈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자 두 분께서, 0다, X다 서로 주장하시면서, 생각지도 못한 열정적인 퀴즈가 되었습니다. 매 분기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해 왔고, 특히 입주자 신○수님에 경우에는 6년에 걸친 주택 생활로 상당 수준의 소방관련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보이며, 자립 이후 응급 상황이 본인의 생명의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은 갖추었다 생각되었습니다.

퀴즈 이후, 영상 시청과 TV 뉴스를 시청하였습니다. 교육 하루 전날, 9월 26일(월) 오전. 대전의 한 아울렛에서 큰 화와 함께,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 유가족분들의 원통함과 가슴 아픔을 입주민들과 함께 공감하며 뉴스를 시청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화재의 위험성과 일상생활 속 소방안전교육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를 입주자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2022년 3분기 소방안전교육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달의 정보

윤석열정부 '장애인 이동권' 법정계획 발표

시내버스 62% 저상버스로, 광역급행형 2027년부터
국도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내년 1월 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해 2021년말 현재 30.6% 수준인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율을 20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한다.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100% 달성, 전국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특별교통수단 확충 및 맞춤형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과 병행해 2021년 86%였던 법정 운영대수를 2026년까지 100%까지 달성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동편의시설 확충, 여객선 기준적합 설치율 38→52%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각각 83%, 66%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2024년부터 케이블카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

효율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별 교통복지 이행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 유관기관(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교통약자 단체, 전문가 등)간 협력 및 소통 제고를 위해 교통복지협의체(기초·광역·중앙)를 구축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기사출처 : [에이블뉴스 - 윤석열정부 '장애인 이동권' 법정계획 발표 \(ablenews.co.kr\)](http://ablenews.co.kr)

2022년 09월 회비납부 명단

김숙이 김은순 김재환 민한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안해영 윤동현 윤두선 이동현 이영훈 장민정
정종남 정주영 정진경 주영경 최미경 최옥희 최윤숙

회비 납부에 감사 드립니다

후원안내

후원계좌	국민은행 822401-04-025866
예금주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	02-908-7776

CMS 신청하실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강북센터 프로그램 모집 · 홍보 합니다~~!!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소통하는 장애, 인권을 담다’

사업명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소통하는 장애, 인권을 담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기간	2022년 10월 18일(화) ~ 2022년 11월 03일(목)
일시	매주 화, 목요일 오후 14시 ~ 17시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층)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될 경우 온라인으로(ZOOM)전환하여 교육 진행
대상	장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참가비용	무료
신청서류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신규참여자)
신청방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or.kr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및 전화접수 / 전화: 070-4437-5502 접수
기타문의	정진경 대리 ☎ 070-4437-5502 ✉ kbcil@daum.net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북센터 프로그램 모집 · 홍보 합니다~~!!

제16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소통하는 장애, 인권을 담다’

회차	일시	강의주제	강사진
1강	10월 18일(화)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강	10월 20일(목)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김경양 (서울시장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센터장)
3강	10월 25일(화)	장애인의 건강권	홍종원 (건강의집의원 대표원장)
4강	10월 27일(목)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이해 및 옹호를 위한 지원방안	양숙미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5강	10월 31일(월)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새 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	조한진 (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교수)
6강	11월 03일(목)	한국사회 여성장애인 실태 및 정책분석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 전환지원팀장)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